

동북아 군사정세와 항공력의 역할

이진학 준장

〈공군본부 항공사업단장〉

I. 서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 공산세력간의 대립 체제와 분단국 문제 및 미·일·중·러 4각의 이해관계 대립 등 다중적 대립 구조하에 있는 동북아 주변 지역의 안보정세는 지역안정을 위한 공감대의 확산과 CSCA(전 아시아 안보 협력회의) 구상 등의 새로운 접근 안보 체제 모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요인의 상존 및 이에 따른 지역적인 군비경쟁의 강화, 북한의 핵문제, 김일성 사후 북한의 불투명한 체제유지 등 현실적인 군사긴장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적인 군사불안 요인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한편 항공기의 역할은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공무기의 실용화로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전승의 주도전력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이와같은 현실에 입각하여 동북아 군사정세를 조망한 다음 중·일·러의 군사력 현황을 살펴보고, 결프전 이후 현대전에서 핵실전력으로 대두된 항공력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항공력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북아지역 군사정세

1. 개관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상 유럽 및 중동지역과 함께 3대 주요 전략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의 정세는 탈이념적인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국제 질서 구축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복합적인 대립 구조의 부상과 함께 군비의 절적 증강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등 잠재적인 군사적 긴장요인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 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이 동북아 지역 신국제질서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주변 4각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현황

가. 미국

미국은 탈 냉전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지역에서 안보정책의 기본 목표를 ① 러시아 경계 ② 일본 견제 ③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 대비 ④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군사력 우위 및 동맹국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역내 균형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러시아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목표는 ① 미국의 군사력 약화 ②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 대국화 견제 ③ 중국의 반러시아화 방지 ④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⑤ 역내 군축 실현 ⑥ 다자간 안보협의 기구 창설 등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러시아는 일차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동북아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성을 떨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국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 역내 국가와의 경제교류, 협력 증진,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 위 외교 추진 거점 확보 등을 동북아 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① 미국·러시아의 독점적인 영향력 억제 ②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 장악 ③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 일본

일본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 동맹 체제 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군사적 역할 광역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 노력은 미국의 방위 분담 증대 요구, 일본내 신보수주의 대두,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 가속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고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세계적인 군비 감축 추세와의 상충 ②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온 구소련의 몰락 ③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급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현황

가. 대내외 정책 방향

북한경제는 현재 식량·외환·에너지·생필품 등의 부족에 따라 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경공업·무역의 “3 제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개방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김정일 체제에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표출된 북한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는 정권 장악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어려우므로 대외

개방 과급 효과를 최소화시켜 체제유지가 손상 받지 않는 범위의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나. 군사전략과 군사력

북한의 기본 목표중 당면 목표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의 전략은 세습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고, 대남혁명 전쟁과 무력남침의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평화적(革命) 또는 비평화적(武力)인 방법으로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무력남침을 위한 군사전략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선제기습 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후방 동시에 공격과 전격전으로 전 종심을 동시에 전장화하여 우방군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이다.

III. 항공력의 역할

걸프전을 통하여 입증된 항공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되리라고 예상하면서 항공력의 본질 즉, 항공력의 특성 및 능력을 교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장차전에서의 항공력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기본적 고찰

가. 항공력의 본질

“군사목적을 위하여 공중 공간내 또는 공중 공간을 통과하여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그 활용 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공중 공간을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예컨데 유·무인 항공기, 탄도미사일, 기구 및 우주비행체 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공군은 항공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주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항공우주력(Aerospace Pow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항공력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공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공군 기본교리에 의하면 항공력이란 “일반적으로 공군력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현존 및 잠재적인 항공관계의 힘을 총칭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 항공력의 특성 : 항공력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항공우주 공간을 활용하거나, 작전할 수 있는 운반체 및 항공기 보유능력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육지와 바다의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는 운반체 및 항공기의 개발은 전쟁을 3차원적인 군사작전으로 변모시켰으며, 이러한 운용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항공력의 특성은 속도, 고도, 거리, 유통성 등이다.

(2) 항공력의 능력 : 항공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습을 감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도발을 효율적으로 거부 또는 지지할 수 있는 감시성, 신속 대응성, 이동성, 침투성, 파괴성, 생존성, 정밀성 등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항공력의 역할

(1) 본질적 측면에서의 역할

(가) 수직적 우회 수단으로서의 역할 : 지상군이 공간적 한계를 수직으로 극복하는 우회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항공기를 이와같이 전쟁에 사용함으로써, 전쟁수행 방식이 크게 바뀌었으며 제공권, 공중우세, 공중제패의 개념이 등장했다.

(나) 화력의 연장으로서의 역할 : 화력의 연장개념으로서 항공기가 처음 사용된 사례는 1939년 9월 1일 04:00를 기하여 독일이 폴란드에 대해 기습공격을 개시한 전격전을 들 수 있겠다.

(다) 연장된 힘으로서의 역할 : 새로운 전쟁을 치른 후에는 더 나은 항공기와 더 진보된 항공력 교리 및 전략, 전술이 개발됨으로써 이 분야에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실례는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포크랜드전쟁, 걸프전 등을 들 수 있다.

(2) 적용측면에서의 역할

(가) 평시 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역할 : 항공력은 신속한 전개 및 침투수단과 정밀폭격능력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적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단호히 격퇴, 응징, 보복하겠다는 국가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전쟁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나) 분쟁시 강압전략 수단으로서의 역할 : 군사력을 강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이 이미 실시한 행동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진행중인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해 영향을 주도록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전시 전승의 핵심전력으로서의 역할 : 항공력은 평시 전쟁억제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장차전에서의 항공력

가. 장차전의 특징

다분히 항공력의 특성과 항공무기체계의 발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장차전의 특징은 첨단무기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선제기습의 보편화, 막대한 전비소모, 정밀파괴 실시 등이 그 특징이라 하겠으며, 세계각국은 이러한 현대전의 특징에 맞는 전력을 양성하고 운용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나. 장차전에서의 항공작전

미래의 전쟁에서 항공력은 다음과 같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탈 대량 살상 및 대량 파괴를 전제로 한 선별적(選別的) 작전 임무 수행

둘째, 체계적(體系的) 작전 임무 수행

셋째, 누적적(漏籍的) 작전 임무 수행

IV. 동북아 지역 국가의 항공력 건설 현황

1. 미국

미국은 1개 주요 지역에서 분쟁 발생시 ① 육군 4-

5개 사단, ② 공군 폭격기 100여대 ③ 해병 4-5개 여단 ④ 항모 4-5척 ⑤ 공군 전투비행단 10개 ⑥ 기타 특수전 부대등의 예비전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러시아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후 항공산업 시설의 65%, 14,000명의 조종사 및 5,000여대의 항공기를 물려 받았다. 5,000대의 항공기는 수많은 기종으로 되어 있으나, 최소방어 충분성 원칙에 의거 대폭 감축할 계획이며, 이중 SU, TU, MIG 기종들의 현대화 작업을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3. 중국

중국은 아·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대만 통일을 관철하려는 기본 전략을 계속 견지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향후의 전략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주력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함께 신장해 나가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군사태세는 “자위대 전력”과 미·일 연합 작전 체제”를 2대 지주로 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국제우선 시대로 전환되고, 특히 서방 세계 집단 방위 체제의 기능이 퇴색 내지 변질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에 여전히 상존하는 안보상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최신 무기를 주축 전력으로 하는 자체 방위력의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1986~1990)에 이어 신증기 방위력 정비 5개년 계획(1991~1995)을 추진 중에 있다.

V. 한국 공군의 항공력 건설 방향

평시에는 전쟁이외의 작전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하고, 전시에는 기동 배비, 중심 침투, 원거리 작전 지원 등을 통하여 군사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기동 배비 전력을 긴급 수송 지원하고, 중심 침투 및 상륙적 부대의 작

전 지원 임무를 위하여 중·대형 수송기를 대폭 증가하여야 한다.

항공력의 정예화는 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의 보유와 함께 이를 운용하는 요원의 전문화된 능력에 의하여 달성된다.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항공력의 운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투요원 및 지원 요원 모두를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정예화시켜야 한다.

VII. 결 론

공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항공력에 대한 작전개념 및 운용방법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지난 걸프전을 통하여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항공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질적 우위와 병행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교리 및 전략전술의 개발과 운용요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력의 건설추세와 동북아 정세를 연계하여 고려해 본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 및 전쟁 억제를 위하여, 그리고 유사시 조기에 분쟁을 진화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항공력이 투입될 것이다. 즉, 항공력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수직적 우회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지·해상군에 비하여 우세한 화력을 이용,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확히 목표지역에 투하할 수 있는 화력의 연장수단, 또는 연장된 힘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전쟁 억제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고 제3불결령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억제전력으로서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하여 질적으로 대등하거나 우위의 항공력(공군력) 중심의 공세력을 보유함으로써 주변 4각과 대등한 정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대북우위의 힘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